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20240120)

< 참을 수 없는 독서모임의 즐거움 >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이 한계 지어지며 인간 존재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Q0. 혹자는 부자들 대부분이 주로 전문서와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는다고 말합니다. 문학은 허무한 소비일 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학의 힘은 무엇인가요?

Q1. 존재의 가벼움만 남는다면 우리는 놓쳐버린 풍선처럼 목적지 없이 허공을 떠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의 무거움만 남는다면 납작하게 짓눌려 땅만 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존재의 무게는 어느 정도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존재의 적당한 무게를 찾을 수 있을까요?

Q2. 이 소설은 역사, 정치,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 장르는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시가 자신의 인생관과 직업을 버리는 선택(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은 결국 테라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가치를 위해 지옥을 감내하거나 자신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Q3-1.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전혀 살지 않은 것처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걸까요? 아니면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Q3-2. 작가가 말했듯 우주 어디엔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나는 행성이 있고 전생과 거기에서 익힌 경험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더 현명해지고, 완숙한 경지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중 어디에 속하시나요?  
(p366, 5부 가벼움과 무거움 16장 참고)

Q4. 이 소설에서 '키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증의 키치. 밀란 쿤데라가 말하는 키치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키치 또한 삶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키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Q5. 처음으로 회귀하여 영원회귀를 말해봅시다. '카레닌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순수한 행복이었다. 그는 천진난만하게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진심으로 이에 즐거워했다.' 마지막 장에 묘사되는 카레닌을 통해 행복은 원형의 시간을 살며 반복되는 영원회귀, 단조로움과 권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행복은 단조로움의 반복인가요? 아니면 사비나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배신(도전, 미지의 세계)에 있나요?

\*참고도서 - <책은 도끼다> 박웅현